

우리 결의 이 사람/미술자료 수집가 김달진

# 화랑가를 훑고 다니는 ‘금요일의 남자’

우표를 수집하던 취미가 잡지속에 나온 명화를 오려 모으던 일로 변해  
청계천 서점가를 돌면서 그의 수집벽이 시작됐다. 지금은 산처럼 쌓인 팜플렛과 신문 속에서 보석같은  
미술자료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천직이다.

‘지’ 난해 한국에서는 미술 전시회가  
몇 번이나 열렸을까. 화랑은 몇개나 늘어났  
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매일  
23종이나 되는 신문에서  
미술 관련 자료를 스크랩  
하고, 1년이면 5천여 건이  
넘는 전시회의 팜플렛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 국  
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 근  
무하는 김달진 씨. 그는 미  
술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  
고 기록하는 이런 일을 지  
난 15년간 묵묵히 계속해  
왔다.



‘바로 보는 현대미술’이라는 책을  
발로 뛰어 만들어 낸 김달진 씨

90년대 들어 미술계가  
외형적으로는 풍성해졌지  
만, 그동안 기초자료 수집  
과 정리에 소홀했던 미술  
계의 현실에서 이제 김달  
진 그는 누구도 따를 수 없  
는 미술정보의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 한국  
현대 미술과 관련한 거의 모든 자료들이 그  
에 의해 정리돼 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 ‘살아있는 미술자료  
컴퓨터’로 불리는 자료수집전문가 김달진  
씨가 현대미술의 1차 자료를 꼼꼼하게 엮은

책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을 펴냈다.  
‘미술상, 공모전의 허상’ ‘엔터티 전시리  
뷰’ ‘미술운동의 역사’ 등 각종 기록과 사실  
에 근거한 비판적인 보고서와 백과사전적인  
정보를 담은 연표, 도표 40여 개 등 미술계  
1차 자료들에 관련된 글 30여 편을 담고 있  
다.

평론가나 미술대학 교수 신분도 아닌 그  
가 발표한 책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발로 뛰어 확보한 정확한 자료를 바  
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14년간 반복하는 금요일의 외출

매주 금요일이면 팜플렛이 담긴 행낭과  
쇼핑백을 들고 화랑가를 훑고 다니는 일을  
어김없이 14년째 계속해왔다. 부쳐오는 팜  
플렛이나 정리하지 못하러 전시장으로 자  
료수집을 나가느나는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시작한 것이 14년 전이다.

처음 전시장을 찾아가던 80년대 초는 하  
루 나가면 시간동, 인사동 일대를 돌고 서  
울대 병원을 가로질러 동숭동을 가면 거의  
모든 전시회를 볼 수 있었다. 실제작품과  
팜플렛 작품 속의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작품수까지 세어 표시를 한다.

‘자료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자료를 수집·분류·정리하는  
일에는 미술인이든 단체든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김달진 씨.

우표를 수집하던 취미가 잡지 속에 나온 명화를 오려 모으던 일로 변해서 청계천 서점가를 돌며 미술서적을 찾고 그림 한장 때문에 잡지 한권을 살 수 없다며 낱장으로 팔라고 사정하고, 일간지 미술기사를 스크랩하면서 그의 수집벽이 시작됐다.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미술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모으기 시작한 것은 1972년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보고 나서부터였다. 1910년부터 60년대까지의 주요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획기적인 전시회였는데 작고한 작가의 자료가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이후 미술자료 수집과 정리에 미친 듯

이 매달렸고, 화랑이나 미술관련 잡지사 등지에 미술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술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신은 없었다. 그러다 첫번째 맺어졌던 곳이 월간 '전시계'였는데 몇년 후 80년도 언론 통폐합 회오리 바람에 밀려 폐간됐다. 그후 1981년부터 한국현대미술관 자료실에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올해 마흔 살인 그는 만학으로 서울산업대 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문화예술과를 다닌다.

“지금까지는 제가 좋아서 한 이런 일들이 미술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주제에 따른 미술자료 분류나 편집한 컴퓨터

검색 기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미술계의 큰 숙제일지도 모른다.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는 국립현대미술관 한쪽 구석에서 산처럼 쌓인 팜플렛과 신문과 씨름하며 그 속에서 미술계에 영원히 남겨질 자료들을 기록하기 위해 외로운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배낭을 메고 화랑가를 순례할 것이다.

글·이돈경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방송과 사보에 글을 기고하는 자유기고가이다.

사진·심재익

미술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라도 자료를 시스템화하여 컴퓨터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숙제라고 한다.

